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간 논의를 해야 함.
- ④ 사회과학적 글쓰기의 기본인 도표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은 좋음. 단,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⑤ 샌델의 논의를 통해 더 나아간 논증을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분석/논평하는 부분이 본문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면 좋을 듯.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현재 지원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 ⑥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론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재능과 타고나는 부

202111663 김민혜

서론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능력주의의 정의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란 부(富)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긍정하고,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인재를 사회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마이클 샌델은 반대를 표하며 능력주의 시스템에 의의를 제기한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자격은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타고난 부와 재능을 같다고 볼 수 있는가? (능력주의에 재능이 포함 되어있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만일 재능이 능력주의에 포함이 된다면 재능과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본론

1. 재능

재능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앞서 재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

력과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른다. 재능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능의 개념에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한 것 또한 재능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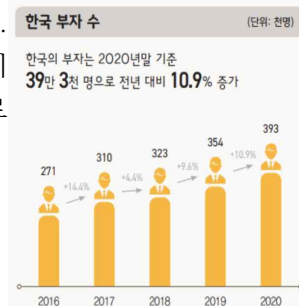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에게나 다양하게 잠재한다. 달리 말해 모두가 같은 양의 재능을 타고나지 않는다. 이것을 한가지의 재능으로 지정해 놓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로 지정 해 놓고 공정함을 따지면 그 무엇도 공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재능은 재능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 재능이 어떤 또는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가 개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사소한 재능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다. 오케스트라로 예를 들어보자면 모두가 한가지의 재능을 갖고 모인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운지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리듬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즉, 한가지의 공통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재능으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세부적인 파트로 나누어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색소폰 연주에 능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재능이 한 가지로만 공통되게 발현되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처럼 재능은 모두에게나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모두에게 재능은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시기에 그것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 재능을 찾지 못했거나 그것이 재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인스타그램 Reels에 참신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탤런트 이시영은 수준급의 권투 실력으로도 유명하다. 국가대표를 뽑는 복싱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녀가 복싱이란 재능을 발견한 것은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복싱하는 장면이 있어서 가볍게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리고 복싱을 배우지 1년 만에 아마추어 챔피언이 되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능은 한 가지만 잠재되어있지 않을뿐더러 그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만약 이시영이 복싱하는 영화를 찍고자 선택하지 않았다면, 복싱에 대해 가볍게라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준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또 이시영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스파링까지 소화했다. 이시영은 “매일 아침 5~6km를 뛰면서 몸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녀가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타고난 재능뿐만이 아닌 노력으로 거뒀던 성공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능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인간은 누구나 재능을 잠재하며 실현에는 개인의 노력이 따른다. 이는 재능이 능력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2. 타고난 부

타고난 부 또한 재능과 같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두 가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재능은 잠재되어 있는 반면 부는 잠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찾겠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극소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의 근거로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들 수 있다. 한국 인구수는 약 5000만명 이다, 한국의 부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시한 그래프의 2020년도 말 상위층의 수는 39만명으로 표기되어있다. 즉, 5000만명중 상위층은 39만명 뿐이고 이것을 타고난 부로 보았을 경우에는 수가 더 작아질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때 타고난 부가 소수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가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자산 50억 미만의 상위층들이 꼽은 부의 유지에는 사업소득 다음으로 상속과 부동산 투자를 두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세계 400대 부자들중 한국인은 5명이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5명의 사람들 중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명 모두 상속으로 인해 400대 부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부는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능은 어떤 재능을 물려줄지 선택할 수 없고 모두에게 잠재하는 반면 타고난 부는 극소수에 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개인의 선택으로 물려줄 수 있다. 서로 같은 출발점에서 각자가 재능을 찾고 노력해서 개발해야 하는 재능에 반면 타고난 부는 노력 없이 태어날 때부터 얻는다. 이러한 이유로 능력주의에서 타고난 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다.

3. 재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

위의 근거들로 능력주의에 재능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지금부터는 재능과 능력이 따라주는 인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정치가들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로 재능으로 인한 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재능을 키우는 데에 할애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복지이다. 두 번째로 비교적 재능이 적은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이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타고난 부를 이용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은 매년 1만 4,000명 이상 지원자가 있고 추천서와 엄격한 학업 및 체력 기준을 통과해 1,200명 만이 입학 허가를 받는다. 모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하게 자란 인재들, 하지만 이들의 20%는 7주간 집중 훈련, 일명 '비스트' 중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 앤절라 더크워스가 포기의 이유를 찾아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며,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로 앤절라 더크워스는 탁월함의 실체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를 이용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재를 가려내고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재능을 찾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 창업 지원금, 초록우산 인재 양성 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전문가의 소견이나 포트폴리오와 같은 자료) 자격이 주어진다면 지원해 준다면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재능과 타고난 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재능이 능력주의에 포함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간단히 본다면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타고난 부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이 재능과 타고난 부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재능이 능력주의에 포함되는 것이 공정하다면 정치가들의 주장과 같이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인재를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27일 전일빌딩245 4층 회의실에서 '2021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 성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서비스' 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음악·미술·과학·댄스 분야 재능아동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대학교 사범대·미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3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재능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 소규모 집중교육 등 재능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들을 더 보편화 시키는 것이 타고난 부로 이루는 성공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재능을 키워주는 등의 정부의 지원으로 격차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현 (Joo-hyunKim) ; 김현철 (Hyeon-cheolKim), 「드워킨의운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9년.151-173(23쪽)

이병관 (Byung Kwan Lee) ; 이국희(GukHeeLee), 「행운과 불운이 추론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easoning」, 2014년, 39-48(10쪽)

황보운(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김홍태(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운에 대한 신념과 창업 기회 역량과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2019년, pp.79 - 92 .

게으른사람이재능을발견하는방법|작성자 이범용 2021.11.15.

<https://blog.naver.com/enja1999/222568340560>

2021 국민은행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터보 832

2021.11.26<https://blog.naver.com/mbastudy/222579114266>

노혜섭, “광주시 동구, ‘네 꿈을 펼쳐라’ 재능꿈나무 성과대회 성료”<위키트리>2021.11.29.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11516>

김승혜, 【길 위에서29】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 2019.1.28.

<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0>

글 이미혜 기자,사진 권호욱 “진짜 복싱챔피언 된 배우 이시영” <경향신문>2011.03.17

<https://www.khan.co.kr/sports/sports-general/article/201103171613181#csidxdab396a9dfd6d3f8714e008824ef7af>